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연구실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93)
- **담당실장**: 연구실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보도시점 : 2017년 11월 17일부터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마이크로타기팅 정책으로 전환 일자리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

-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국민연금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 을 통해 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제안했다.
-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국민연금 데이터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속보성, 대표성을 제공하고 있어 일자리 생성 및 소멸, 이동 특성분석,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 국민연금 데이터는 가입자의 주민정보(경제인구, 취업 및 실업인구, 월평균 소득액, 부부수, 자녀수, 다문화가정, 실업기간 등)와 사업장정보(사업장 인원수, 취업자수, 실업자수, 월평균소득액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장 자료는 업종별 세분류가 가능하고 주거지역 또한 읍면동 뿐 아니라 소지역으로 분류가 가능하여 일자리 정책 활용도가 높다.

1) 마이크로타기팅 정책: 불특정다수가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산업, 특정지역, 특정계층 등 정책대상을 세분화하여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특정하여 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방법(역자 주)

-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하여 1)매월 사업장 및 개인의 일자리 생성, 소멸에 대한 정보가 산업별로 세분화 되어 작성되어 **특정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일자리 정보**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상황판’** 을 지역 차원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2)국민연금 데이터가 블록ID가 주어져 있어 아파트 단위, 또는 가로세로 100미터 단위 지역의 데이터가 생성되어 기존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세밀한 소지역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특정지역, 특정산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이 가능하며 3)취업자의 이전업종과 현재업종의 이동 및 패턴 분석등 일자리 이동경로 분석을 통해 재취업, 직업훈련, 창업정책에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이강진 연구실장은 국민연금 통계가 전수데이터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가 아니므로 정확한 취업률, 실업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데이터가 작성되지 않는 한계를 가짐에도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마이크로타기팅 일자리 정책으로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이전 공공기관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세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협력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전라북도 도정정책 수립, 집행 및 환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북연구원은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 농진청 등 지역 이전 기관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이전기관의 정착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